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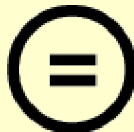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지역학석사학위논문

중국 고령화의 실태, 원인 및 정책대응



2009년 8월

부경대학교대학원

국제지역학과

HAN CHUN LIANG

국제지역학석사학위논문

중국 고령화의 실태, 원인 및 정책대응

지도교수 이 중 희

이 논문을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부경대학교대학원

국제지역학과

HAN CHUN LIANG

HAN CHUN LIANG의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9년 8월



主 審 文 學 博 士 金 昌 慶 印

委 員 政 治 學 博 士 李 丹 印

委 員 社 會 學 博 士 李 重 熙 印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의의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제 3 절 선행 연구 검토	2
 제 2 장 고령화 사회의 형성요인	4
제 1 절 고령화 현황	4
제 2 절 자연적 증가	5
1. 출생률의 하락	5
2. 사망률의 하락	6
제 3 절 정책적 요인	7
1. 출산제한 정책의 시험	7
2. 1970년대 만(晩)·희(稀)·소(少) 정책	8
3. 1980년대 이후 계획출산(計劃生育) 정책	9
 제 3 장 고령화 사회의 특징과 문제점	12
제 1 절 특징	12
1. 고속: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13
2. 고령: 80세 이상 노인인구의 초고속 증가	15

3. 방대: 많은 노인인구 수	16
4. 큰 부담: 노인 부양 비율의 확대	16
5. 큰 지역 차: 도·농, 발달지역·낙후지역 간의 노인 비율 확대	18
제 2 절 문제점	21
1. 경제적 측면	22
1) 저축률의 하락	22
2)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23
3) 재정의 압박	24
2. 사회적 측면	26
1) 동·서부 간 부양부담의 불균등성	26
2) 도·농 간 부양부담의 불균등성	29
3) 도·농 간 의료서비스의 불균등성	30
4) 도·농 간 사회복지 서비스의 불균등성	31
3. 개인적 측면	32
1) 노인인구의 경제적 빈곤	32
2) 소외와 고독	33
3) 간병문제	34
4) 노인의 재취업문제	35
제 4 장 고령화 정책변화 및 대책	36
제 1 절 고령화 정책의 변화	36

제 2 절 고령화 사회의 대책	38
1. 거시적 대책	39
1) 대도시 건설	39
2) 풍요로운 신농촌 건설	41
3) 실버산업의 육성	42
4) 퇴직연령 조정과 노인의 일자리 창출	43
2. 미시적 대책	44
1) 인적자원 개발로 경쟁력 강화	44
2) 양로보험체계의 보완	45
3) 유연한 인구정책	45
제 5 장 결론	47
제 1 절 요약	47
제 2 절 시사점	49
참고문헌	51

표 목 차

<표 1> 인구기본 현황	4
<표 2> 주요 개발도상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12
<표 3> 2001-2100년 중국 고령화 추세	12
<표 4> 인구 고령화 속도의 국제비교	14
<표 5> 연령대별 노인인구 구성	15
<표 6> 성(省)별 노인인구 분포	20
<표 7> 중국 도시 퇴직 인원 및 양로보험금 지출 현황	25
<표 8> 지역별 연령 구성과 부양비	27
<표 9> 연령대별 인구구성(2005)	29
<표 10> 중국의 산업별 GDP 대비 비중	40
<표 11> 중국의 산업별 취업 비중	40
<표 12> 중국의 서비스 부문별 도시취업자수	41

그 래 프 목 차

<그래프 1> 출생률, 사망률 및 인구증가율	5
<그래프 2>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13
<그래프 3> 생산가능 인구 전망	17
<그래프 4> 부양비율 추이	18
<그래프 5> 노인인구 부양비 및 유소년인구 부양비	23
<그래프 6> 중국의 연금 가입자 및 가입률	31



The Current Situation, and Factors of the Aging Society and Policies in China

HAN CHUN LIA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China has the largest population all over the world. As China's economy has developed, people's living and health standards have been greatly improved. Average age span has increased, death rate has decreased and also the aging problem is getting worse. China has become an aging country since 1999. China is one of the developing countries which first has faced with aging problem. Also, China has the largest aging population, comprising 1/5 of aging people of world's aging population. The aging problem of China is not only a problem of China itself but also a problem of the world.

By referring to the related information of aging population of China and Korea, I analyzed the status of China's aging society, birth rate, death rate and population policies, and then disclosed the reasons of China's aging problem.

Then, I did a further study of characters and problems of China's aging society. The characters are as follows: huge numbers of population, huge differences among areas, high aging speed, high average age and serious demand of financially supporting of the elderly. Also I found more problems exist in aging society, which can be concluded in three main factors as follows: First the economic problems, such as save rate decrease, working population decrease, financial pressure increase; Second the social problems, like the unbalance between the east part of China and west part of china, also the unbala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ird personal problems which include aging people's economic problems, loneliness, medical treatment problems and also employment problems.

Focusing on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I suggest to solve the problems via changes in aging policies. These two ways are as follows:

First, develop metropolis and construct new countries to decrease the differenc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which can also ease the aging employment, loneliness and poverty. Second, support silver industry to decrease the differences in serves industri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study of China's aging problems have had also brought many revolutions. China has been focusing on economic development but lacking the aging policies, make aging problems serious. Also it takes time to make and perform macro policy, while the speed of aging problems is getting faster and faster. So some temporary different policies in different areas are also necessary. And the family plan policy is also needed to perform to control the number of populations. Last but not least,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silver industry.

Key words: Aging Society, Policies, huge numbers, huge differences among areas, high aging speed, high average age, serious demand of financially supporting, economic problems, social problems, personal problem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의의

21세기는 고령화의 시대이다. 많은 선진국이 고령화 사회 혹은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일부 개발도상국가도 노인인구의 증가로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고령화란 한 국가의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령화를 판단하는 기준은 UN의 기준이 널리 통용된다.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이 7%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Aged society)는 14% 이상인 사회를 일컫는다. 노인인구 비중이 20% 이상에 달하는 국가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라 부른다.¹⁾

고령화 사회에 진입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에 각국 정부는 고령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개혁 개방 정책을 시행한지 30여년이 지난 중국에서도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였다. 더욱이 중국은 선진국처럼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한 후 고령화 사회에 진입(先富後老)한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 속도보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未富先老)하여, 정상적인 진입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중국의 고령화는 현재 법률제도, 사회보장제도, 재정, 사회서비스 등 많은 부문에 걸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발달지역인 동부 연안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특히 상하이(上海)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 손실이 심각하여 경제발전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은 급속한 고령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에서는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고령화 원인과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특징과 문

1) “人口老齡化”,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view/358103.html>, (검색일:2009.4.24).

제점을 고찰하고, 또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고령화 정책과 대책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다. 기존 문헌자료에 근거하여 고령화 사회의 실태, 원인 및 정책대응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에서 출판된 단행본, 논문 연구보고서 및 일간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중국의 공식통계자료인 중국국가통계국(中國國家統計局)의 중국통계연감(中國統計年鑑)과 인터넷을 통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및 문헌을 통한 연구는 보다 객관적으로 중국 고령화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확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 목적과 선행연구를 통한 자료 분석과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고령화 사회의 형성원인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와 대책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전체 논문의 요약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한국의 선행연구는 주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 강경락²⁾은 노인복지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실버산업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 논문은 노인복지 정책의 변화과정과 실버산업의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연구 자료이다.

김태곤³⁾의 논문은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양로보험의 개혁 과정과

2) 강경락(2005), "현대 중국의 노인복지 정책과 실버산업", 강남대학교 『인문과학논집』 제14집.

3) 김태곤(2002), "중국 사회보험 연구-양로보험의 개혁 과정과 문제점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2집.

문제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문에서는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계획경제 시기부터 개혁 개방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 보고 있어, 양로보험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고춘란·김선희⁴⁾는 중-한 합작으로 중국의 도시와 농촌의 노인복지정책을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도시와 농촌의 노인복지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이원화된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이중희⁵⁾는 중국의 인구 정책과 고령화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논문은 이에 기초하여 보다 세분화된 분석을 시도하였고, 이에 덧붙여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 대책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인구정책과 사회 발전이 노인인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였고, 또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노인 인구의 삶을 보장하려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실버산업, 양로보험 등 고령화 정책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라 할 것이다.

중국 자료는 인구정책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 중에서 난징대학(南京大學) 사회학과 교수인 湯兆雲⁶⁾은 중국 정부의 인구정책이 경제, 자원,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연구를 하였다. 런민대학(人民大學)의 杜鵬⁷⁾은 노인문제를 물질적·정신적·심리적 측면 등 여러 방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는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 고령화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뛰어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두 교수의 연구를 토대로 중국의 고령화 사회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4) 고춘란·김선희(2007), "중국 도시와 농촌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5) 이중희(2007), "중국의 인구정책과 고령화의 추세, 원인 및 특성", 『중국학』 제29집.

6) 湯兆雲(2005), 『當代中國人口政策』, 知識產權出版社.

7) 杜鵬(2006), 『人口老齡化與老齡問題』, 北京: 中國人口出版社.

제2장 고령화 사회의 형성요인

제1절 고령화 현황

중국의 노인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인구는 1964년에 잠시 하락하였다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에는 6.96%를 차지하였다. 2005년에는 7.7%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64년도에 노인인구의 비율이 잠시 하락한 이유는 첫째, 1952-1957년 사이 출생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둘째, 1958년-1961년 사이 대약진운동 실패와 기근으로 인한 식량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몸이 허약한 노인인구의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이다.⁸⁾ 중국은 <표 1>에 의하면, 2007년에는 거의 10%에 육박하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 사회로 나아가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표 1> 인구기본 현황

	단위	1953	1964	1982	1990	2000	2005	2007**
총인구	백만명	594	694	1008	1133	1265	1307	1321
가구규모	명	4.33	4.43	4.41	3.96	3.44	3.36	3.18
연령별								
0-14	%	36.28	40.69	33.59	27.69	22.89	20.3	17.8
15-64		59.31	55.75	61.5	66.74	70.15	72.0	72.8
65세이상		4.41	3.56	4.91	5.57	6.96	7.7	9.4
총부담율	%			62.60	49.93	42.66	38.88	37.42
유소년				54.63	41.53	32.67	28.19	24.56
노년				7.97	8.4	9.99	10.69	12.86
기대수명	세			67.77*	68.55	71.40		

주 : *는 1981년 수치임. **는 0.09% 표본조사 결과임.

출처 : 『國家統計人口年鑑』 2005, p.21; 『國家統計年鑑』 2006, p.102; 『中國統計摘要』 2006, p.38; 이중희(2007) pp.305-306과 『國家統計年鑑』 2008, pp.87, 93, 97 에서 계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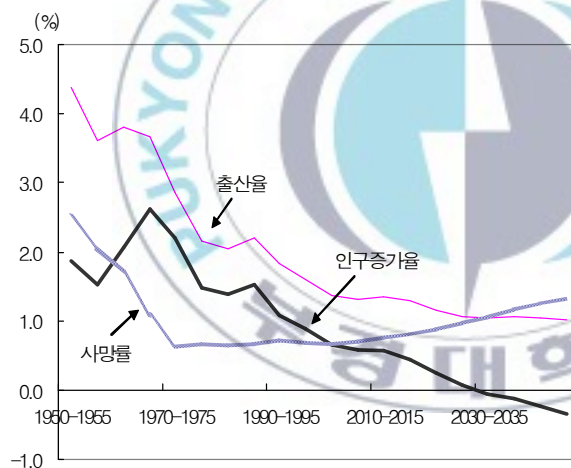
8) 이중희(2007), pp.305-306.

제2절 자연적 증가

1. 출생률의 하락

중국 인구는 1940년대 이전에는 고출생·고사망·저증가 유형에 속하였고, 1950-60년대에는 고출생·저사망·고증가 유형을 거쳐 1970년대 후기부터 저출생·저사망·저증가 유형으로 진입하였다.⁹⁾ 그 이후 2002년부터 시작된 1.2% 대의 저출산율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래프 1> 출생률, 사망률 및 인구증가율



출처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4」,
http://kr.blog.yahoo.com/thegoldnews/MYBLOG/dist_frame.html?d=http%3A%2F%2Fkr.blog.yahoo.com%2Fthegoldnews%2F312%3Fm%3Dc%26amp%3Bno%3D312&s=n에서 재인용(검색일:2009.4.30).

신 중국 성립 직후 인구 출생률이 높았던 까닭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중국 경제가 낙후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농촌에서 더욱 두드러졌

9) 湯兆雲(2005) 앞의 책, 이중희(2007), p.304에서 재인용.

다. 농민의 가정 수입은 주로 노동력이 많고 적음에 의존도가 높았기에, 이에 농민들은 다출산을 선호하였다. 또한 농민들은 늙어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전적으로 부양을 받아야 했다. 게다가 "다자다복(多子多福)", "전통대잇기(傳統接代)", "남아 선호 사상(重男輕女)" 같은 봉건사상의 영향까지 더해져서, 농촌에는 조혼과 다산의 풍습이 깊었다. 둘째, 중국 정부의 인구에 대한 인식이 극히 단편적이었기에, 인구 통제에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아야 힘도 크다"(人多力量大)는 주관적 관점도 많이 작용하였다. 중국 인구의 출생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시기는 1970년대부터이다(<그래프 1>참조). 이 시기는 정부가 인구증가에 제한을 가한 시기와 일치한다. 즉 중국 정부의 인구 인식이 점차 바뀌기 시작한 시기로, 이에 대한 과정 및 원인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겠다.

2. 사망률의 하락

<표 1>에서 보듯이 개혁 개방 이래 사망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신중국 성립이전에는 약 2.2-3.5%¹⁰⁾를 유지하였으나 1950년대에는 1.8%까지 하락하였다. 1965년에는 0.95%로 내려갔다가 1980년에는 0.63%¹¹⁾까지 낮아졌는데, 이는 구서독, 인도, 이집트, 구소련,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 주요 국가보다 낮은 것이다. 그러나 사망률은 2007년 0.69%로 약간 상승하였다.¹²⁾

중국인의 평균 수명은 낮은 사망률에다 양호한 건강 수준으로 인해 크게 높아졌다. 신중국 성립 이전에는 중국인의 평균 수명이 겨우 35세 정도였다가 1957년에는 57세로 되었고, 현재는 71세로 높아져 신중국 성립 이전보다 2배로 증가하였다. 이는 세계 인구의 평균 수명인 62세보다 높은 것이다.¹³⁾

10) 侯楊方(2003), "民國時期中國人口的死亡率", 『中國人口科學』第5期, p.33.

11) 田雪原·王金營·周廣慶(2006.2), 『老齡化-從"人口盈利"到"人口虧損"』, 中國經濟出版社, pp.20-23.

12) 『中國統計年鑑』2008, 中國統計出版社.

13) 侯楊方(2003) 위의 책, p.33.

이상에서 살펴본 것은 중국인구의 자연증가율은 낮은 수준의 증가에서 높은 수준의 증가로, 다시 높은 수준의 증가로부터 낮은 수준의 증가로 변동하는 추세였다. 자연증가율은 1949년에 1.6%였다가, 1953년부터 1973년까지 높은 수준의 출생과 낮은 수준의 사망으로 인해 자연증가율이 2.32%까지 이르렀다.¹⁴⁾ 그러나 1959년부터 1961년 사이 대기근으로 인해 자연증가율이 급속히 감소하였는데, 특히 1960년에는 -0.457%였다.¹⁵⁾ 1973년 이후 자연증가율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1987년 이후에는 다시 하락하다가 2005년에 0.589%로 조금 상승하였다.¹⁶⁾

제3절 정책적 요인

1. 출산제한 정책의 시험

1950년대에는 "사람이 많아야 역량이 강해진다(人多力量大)", "사람이 많아야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人多好辦事)"는 점만을 강조하고, 인구 증가가 너무 빠르면 경제와 사회 발전에 부작용을 준다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베이징 대학 총장이자 저명한 경제학자인 마인추(馬寅初)는 『新人口論』에서,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경제와 사회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겨,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인구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이론과 주장은 비판을 받았고, 중국 정부 또 것을가족계획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 외에도 중국 국민은 당시 문화 수준이 매우 낮아, 생리, 출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과학적인 피임 방법이 보급되지 않았던 것도 출산 제한 정책의 실시에 영향을 주었

14) "新中國人口發展歷史", 「中國網」,
http://www.china.com.cn/aboutchina/zhuanti/zgrk/2008-04/17/content_14971751.htm(검색일: 2009.6.13).

15) "關於1960年人口問題的權威說明", 「百度百科」,
<http://tieba.baidu.com/f?kz=83404914>(검색일: 2009.6.13).

16) "2005年中國人口增加768萬人 自然增長率爲5.89%", 「千龍網」,
<http://news.qq.com/2006/02/28/1640@3032927.htm> (검색일: 2009.6.13).

다.¹⁷⁾

1960년대 초에 이르러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처음으로 출산제한 정책을 건의하였다. 이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1963년부터 출산제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출산제한 정책 실시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약진운동 기간 중 도시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식량 배급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정부는 출산을 억제하여 식량배급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둘째, 1959년-1961년 사이의 대기근이다.¹⁸⁾ 대약진 운동으로 말미암아 농업의 기초가 무너졌다. 철을 생산하기 위해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를 용광로에 녹였으며 농사에 종사하는 시간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 아사한 사람의 수가 수천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1966년 문화대혁명이 발생하자 이러한 출산제한 정책의 주체가 없어졌고 또 대혁명 기간 중에 아사한 인구 수가 수천만에 이르렀기에, 이에 대한 정책은 자연적으로 중단된 것이다. 그 이후 출생률과 자연증가율은 서서히 증가하였다.

2. 1970년대 만(晩)·희(稀)·소(少) 정책

1970년대 중국은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의 주도 아래 출산제한 업무를 전면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4차5개년계획"(四五計劃, 1971-1975년) 시기에 중국 정부는 도시인구의 자연증가율이 1%, 농촌의 자연증가율이 1.5% 이내라는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중국정부가 처음으로 인구 제한 목표를 정식 문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1973년 12월, 국무원 계획출산 지도소조는 전국 제1차 계획출산 업무보고에서 만(晩)·희(稀)·소(少) 정책을 건의하였다.¹⁹⁾

만(晩)·희(稀)·소(少) 정책의 구체적인 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晩)

17) 何雪松(2002), 『社會學視野下的中國社會』, 華東理工大學出版社, 이중희(2007), p.305에서 재인용.

18) 湯兆雲(2005) 앞의 책, 이중희(2007), p.296-297에서 재인용.

19) "我國計劃生育政策產生及發展過程", 「中國網」,
<http://www.china.com.cn/chinese/2002/Aug/197097.htm>(검색일:2009.6.6).

의 의미는, 남성은 25세 이후에 결혼하고, 여성은 23세 이후 결혼하여 24세 이후 출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희(稀)는 출산 간격이 3년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셋째, 소(少)는 두 자녀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초보적 출산제한 정책에서 계획적 출산제한 정책으로 바뀐 것이다. 이전에는 출산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기 어려웠다. 둘째, 전통적인 출산 관념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다자다복(多子多福)의 전통문화가 강한 나라이다. 이 시기 도시에서는 단위(單位)라는 체제를 통해 취업과 복지 등이 보장되었으나, 농촌은 토지 외에 다른 복지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농촌에서는 다산(多産)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생활과 미래 생활을 보장받으려는 욕구가 컸다. 하지만 만·희·소 정책을 통해 이러한 관념이 변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출생률은 1970년의 3.343%에서 1979년 1.161%로 감소하였다. 또한 평균 출산율은 1970년의 5.8명에서 1978년 2.7명으로 감소하였다.²⁰⁾

3. 1980년대 이후 계획출산(計劃生育) 정책

1980년 9월, 중국인민대표대회 제5기 3중전회 회의에서 인구가 적은 소수민족 지역을 제외하고는 1자녀 출산만을 허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당중앙은 "인구증가 문제 통제하기 위해 전체 공산당원 및 공청단원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關於控制我國人口增長問題致全體共產黨員、共青團員的公開信)"에서 핵심세력들이 새로운 계획출산 정책에 적극 앞장서서 실행하도록 호소하였다. 이듬해, 전인대 제5기 4차 회의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인구수를 제한하여 인구의 소질을 높이는 것이 중국의 인구정책임을 제기하였다. 1982년 9월 공산당 12차 당 대회에서 계획출산 실행이 국가

20) 湯兆雲(2005) 앞의 책, 이중희(2007), p.297-298에서 재인용.

의 제1의 기본정책으로 확정하였다. 같은 해 12월, 전인대에서는 계획출산을 법률적으로 명시화하였다. 2002년 9월에 "중화인민공화국 인구와 계획출산법(中華人民共和國人口與計劃生育法)"을 제정하여 계획출산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였다.

이 시기 정책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1980년-1984년으로 계획출산 목표 강화기이다. 둘째 단계는 1984년-1991년으로 "1자녀"정책 완성기이다. 셋째 단계는 1991년 이후로 상대적으로 안정기이다.

첫째 단계는 "만·회·소"정책에서 "1자녀"정책으로 계획출산 목표가 강화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가 70년대와 가장 큰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소수민족을 제외하고 도시와 농촌 모두 1자녀로 제한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실제로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1980년에서 1984년 사이에 농촌지역의 평균출산율은 2.48, 2.91, 3.32, 2.78, 2.70명으로, 초기 실행 단계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1982년 농촌지역에 한정하여 심사를 통한 2자녀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둘째 단계는 정책을 완성한 시기이다. 전 단계에서의 "1자녀"정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특히, 농촌지역의 반발이 컸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1984-1991년 사이에 농촌에 대한 완화정책을 실시하였다. 먼저, 농촌의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사회보장, 양로보장제도가 취약하였다. 그리고 당시 농업은 노동력이 생산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다자녀 출산에 대한 욕구가 강하였다. 다음으로, 다자다복의 관념과 노후대비의 관념이 강하여서 쉽게 "1자녀"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중국정부는 농민의 반발을 고려하여 정책목표를 일부 수정하였다.

1986년 당 중앙의 "제6차5개년계획 기간 계획출산 현황과 제7차5개년계획 기간 의견에 관한 보고 (關於"六五"期間計劃生育情況和"七五"期間工作意見的報告)"에서, 농촌에서는 첫째 아이가 여아인 경우 둘째 아이의 출

산을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출산을 허용하였다. 각 성·자치구·직할시는 이 정책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맞게 정책을 조정하였다. 지역별로 실시한 "1자녀"정책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유형은 "1자녀"정책을 고수하지만, 곤란한 경우 일정한 기준을 정해 2자녀도 허용하는 것이다.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장수(江苏), 허베이(河北), 허난(河南), 산시(山西), 네이멍구(内蒙古)의 한족지구, 쓰촨(四川),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안후이(安徽), 푸젠(福建) 13개 성·자치구·직할시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제2유형은 성(省)내 농촌 전체 혹은 일부에서는 여아만 있는 독녀호(獨女戶)인 경우, 두 번째 자녀의 출산을 허용하는 것이다. 라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저장(浙江), 장시(江西), 산둥(山東), 광시(廣西), 구이저우(貴州), 산시(陝西)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제3유형은 농촌에 2자녀가 보편화되는 경우이다. 광둥과 윈난(雲南)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제4유형은 3자녀 이상 정책을 취하는 경우이다. 닝샤(寧夏), 칭하이(青海), 신장(新疆), 시짱(西藏) 등 주로 변방 소수민족 지역이다.

셋째 단계는 상대적 안정기이다. 1991년 이후에는 별다른 큰 변화 없이 정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던 시기이다. 2002년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인구와 계획출산법" 제18조에 따르면, 만혼(晩婚)과 만육(晩育)을 유도하고 1자녀 출산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두 번째 자녀의 출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혹은 상무위원회에서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국가가 계획출산 정책의 법률적 지위를 확립하고 지방법규에 의한 계획출산 정책을 종식시켰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계획출산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에서 2005년 사이에 1.821%에서 1.24%로 하락했고, 자연증가율도 1.187%에서 0.589%로 하락하였다. 특히 계획출산 정책을 실시한지 단 20년 만에 인구재생산 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²¹⁾

21) 湯兆云(2005) 앞의 책, 이중희(2007), p.299-301에서 재인용.

제3장 고령화 사회의 특징과 문제점

제1절 특징

21세기 중국인구 고령화의 주요 특징은 "2고3대"(2高3大)²²⁾ 즉 고속, 고령, 많은 수의 노인, 높은 노인 부양비율, 큰 지역차이다.

<표 2> 주요 개발도상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000년 기준, %)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4.9	5.4	4.9	4.1	6.0	3.9	5.4

출처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4」.

<표 3> 2001-2100년 중국 고령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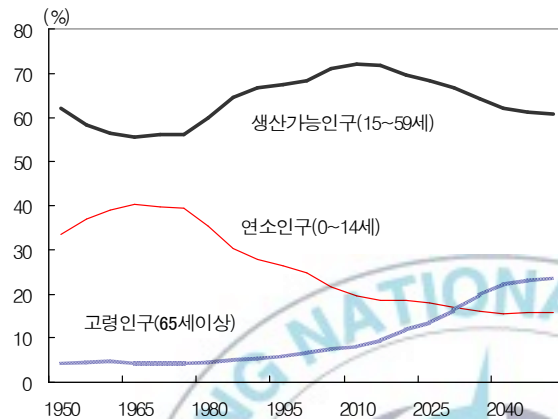
	1단계	2단계	3단계
시간	2001-2020	2021-2050	2051-2100
발전추세	급속발전 단계	가속화 단계	안정된 초고령화 단계
60세 이상	2000년 1.29억 명, 2020년 2.48억 명	2021년 2.7억 명, 2050년 4억 초과	2051년 최고치 4.37억 명
80세 이상	3067만 명, 전체 노인인구의 12.37%	9448만 명, 전체 노인인구의 21.78%	25-30%
고령화 정도	17.17%	30%	약 31%

출처 : "중국인구 고령화 발전추세 예측 보고", 中國老齡事業委員會(2006); 고춘란·김선희(2007), "중국 도시와 농촌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p.38에서 재인용.

22) 曾毅(2004.9), 『中國人口分析』, 北京大學出版社, pp.63-69.

1. 고속: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그래프 2>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출처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4」.

http://kr.blog.yahoo.com/thegoldnews/MYBLOG/dist_frame.html?d=http%3A%2F%2Fkr.blog.yahoo.com%2Fthegoldnews%2F312%3Fm%3Dc%26amp%3Bno%3D312&s=n (검색일: 2009.4.30).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고령화는 속도가 빠르고 그 추세 역시 급속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노인인구의 증가는 연 평균 3%대로, 이는 총인구 연평균 증가율 1.68%에 비해 약 1.4배나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다.²³⁾ UN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30년과 2050년 65세 이상의 중국노인인구 비율이 각각 15.7%와 22.6%²⁴⁾로 된다고 하였다. 또한 UN이 발표한 출생율과 사망률의 예측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이 10%에서 20%로 증가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중국 20년(2017-2037), 일본 23년(1984-2007), 독일 61년(1951-2012), 스위스 64년(1947-2011), 미국 57년(1971-2028)이다.

23) 강경락(2005), "현대 중국의 노인복지 정책과 실버산업, 강남대학교 『인문과학논집』 제14집, p.31.

24) 曾毅(1994), 『中國人口發展態勢與對策探討』, 北京, 北京大學出版
湯兆雲(2009), "人口老齡化背景下的社會養老問題及對策", p.2에서 재인용.

1990년부터 2050년까지 중국의 65세 이상노인인구 비율의 연평균증가율은 2.3%이다. 이 수치는 영국의 2.9배, 미국의 2.6배, 프랑스의 2.3배, 독일의 2.1배와 일본의 1.4배이다.²⁵⁾

<표 4> 인구 고령화 속도의 국제비교

국가	도달년도			증가소요년수	
	7%	14%	20%	7%→14%	14%→20%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스웨덴	1887	1972	2014	85	42
영국	1929	1976	2026	47	50
미국	1942	2015	2036	73	21
일본	1970	1994	2006	24	12
중국	2001	2026	2036	25	10

출처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6 인구통계자료집』.

http://kr.blog.yahoo.com/thegoldnews/MYBLOG/dist_frame.html?d=http%3A%2F%2Fkr.blog.yahoo.com%2Fthegoldnews%2F312%3Fm%3Dc%26amp%3Bno%3D312&s=n(검색일: 2009.4.30).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한 출산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과 관련이 깊다. 1970년대 초반 전체인구의 4.3% 수준이던 고령인구가 2001년 7%를 넘어섬으로써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었고 2005년 말 1억 명이 초과되었다(총인구의 7.7%). 1970년대 초 3% 내외를 보이던 출산율이 2005년 1.3%로 낮아졌으며, 기대수명은 1960년대 49.5세에서 현재 72.6세로 연장되었다.²⁶⁾ 인구증가율은 1998년 이후 1%를 하회하고 있으며(2004년 0.59%), 북경, 상하이 등 산업화가 진행된 대도시의 경우 인구의 자연증가는 거의 정지된 상황이다.²⁷⁾ 아울러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경제발전 속도를 추월하고 있기에, 고령화 문제는 중국의 경

25) 이상 수치는 2050년 중국 평균 인구 수명을 78.8세로 가정한 수치이고, 일본 1995년의 인구수 명보다 1.6세가 적은 매우 보수적인 사망률 아래에 예측한 결과이다.

26) 杜鵬(2006), 『人口老齡化與老齡問題』, 北京: 中國人口出版社.

27)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4」, <http://www.un.org/esa/population/publications/WPP2004/wpp2004.htm>(검색일: 2009.4.29).

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²⁸⁾

2. 고령: 80세 이상 노인인구의 초고속 증가

80세 이상의 고령노인들은 보편적으로 몸이 허약하고 병도 많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보호가 필요하다. 07년을 기준으로 80세 이상의 고령 노인비율은 65-79세 노인들의 5배에 달한다. 고령노인은 가장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는 노인업무의 중점이자 난점이기도 하다. UN의 통계수치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50년까지 중국 80세 이상의 고령노인의 연평균 증가속도는 4.2%이다. 이 수치는 영국의 2.7배, 미국의 1.9배, 프랑스의 2.6배, 독일의 2.5배와 일본의 1.8배이다. 만약 2050년 중국인구의 평균수명을 84.9세로 가정하여²⁹⁾ 중국의 저사망률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1990년부터 2050년까지 중국 80세 이상 고령노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5%이고, 60년간 지속될 것이다.³⁰⁾

<표 5> 연령대별 노인인구 구성

	인구(명)	비율(%)
전국	1188739	100.0
65 - 69세	39849	3.35
70 - 74세	33236	2.80
75 - 79세	20985	1.77
80 - 84세	11302	0.95
85 - 89세	4436	0.37
90 - 94세	1123	0.09
95세 이상	280	0.02

주 : 2007년도 전국 0.09% 표본조사에 근거함.

출처 : 『中國統計年鑑』 2008, p92.

28) 강경락 앞의 글, p.31.

29) 이는 1995년 일본보다 4.5세 많은 나이이다.

30) 曾毅(2004), pp.63-64.

3. 방대: 많은 노인인구 수

2050년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20세기 초반인 현재 15세 이상의 성년과 소년의 인구수로, 이는 이후의 출생율과 무관하며 단지 사망률 변동에 따른 제약만 받을 뿐이다. 중국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수는 1990년의 6299만 명³¹⁾ 2000년 8810만 명에서 2027년과 2050년에는 3억 명과 4.3억³²⁾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UN의 예측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2030년과 205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각기 2.3억 명과 3.34억,³³⁾ 명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미국 전략과 국제문제 연구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4.48억 명이 될 것이고, 그 중에서 80세 이상 노인인구가 1억 명을 초과할 것이라 하였다.³⁴⁾

중국학자들과 외국 학자들이 각기 다른 시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예측한 연구결과의 일치는, 21세기 중국의 노인인구가 방대하게 된다는 것이 의심할 수 없는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다.

4. 큰 부담: 노인 부양 비율의 확대

앞에서는 주로 노인과 고령노인의 수,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화 비율 및 성장 속도를 살펴보았다. 보편적으로 고령화 정도를 판정하는 표준은 노인부양비율이다. 이것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15-64세 노동연령인구와의 비율이다. 15-64세의 사람들이 모두 일하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65세 이상의 노인 중 계속 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노인부양비율은 개략적으로 노인부양의 수요와 사회 잠재생산능력(노동인구) 간의 관계를 설명한

31) 唐灿(2005), "中國城乡社会家庭結構与功能的變遷", 『浙江學刊』第二期, p.202.

32) 杜鵬(2006) 앞의 책, p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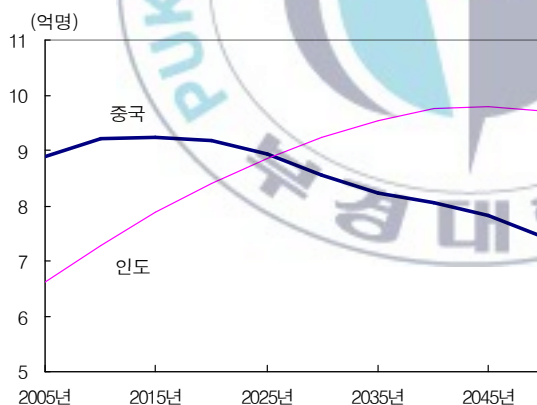
33) UN(1999). 「Population Division, United Nations」, 앞의 글.

34) 楊思涵(2009.4.22), "報告:中國老齡化問題將威脅社會安定", 「路透(Reuters)」.

다. 현재 중국의 노인부양비율은 0.11명 정도이다. 즉 노동연령의 사람 한 명당 0.11명 노인을 부양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매 9.1명의 노동연령 인구가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저사망율의 추세에 따라 2020년 중국의 노인부양비율은 0.17과 0.19가 될 것이다. 이것은 2000년 보다 54.5%와 72.7%가 증가된 수치이다. 그리고 2050년의 노인부양비율은 0.37과 0.45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2050년 중국 노동인구의 부담은 2000년의 3.4배와 4.1배로 될 것이다.³⁵⁾

노동인구는 노인을 부양해야 할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부양해야 한다. 노인부양비율과 대응하는 다른 하나의 판정표준은 유년부양비율이다. 즉 0-14세 인구수와 15-64세 인구수의 비율이다. 노인부양비율과 소년부양비율을 합쳐 총부양비율³⁶⁾이라고 한다. 중·저사망율의 추세에 따라 계산하면 2050년 총부양비는 2000년보다 22%와 38%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프 3> 생산가능 인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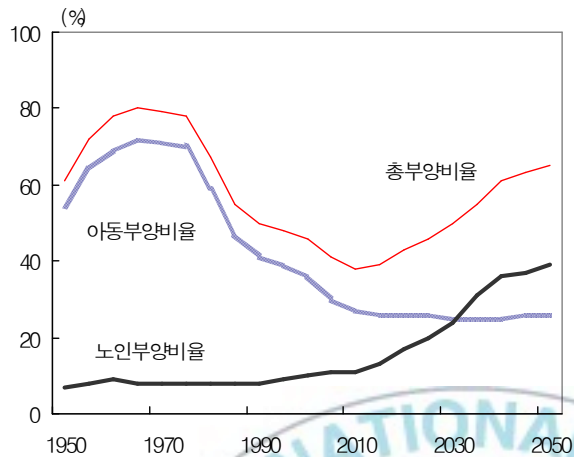


출처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4」,
http://kr.blog.yahoo.com/thegoldnews/MYBLOG/dist_frame.html?d=http%3A%2F%2Fkr.blog.yahoo.com%2Fthegoldnews%2F312%3Fm%3Dc%26amp%3Bno%3D312&s=n(검색일: 2009.4.30).

35) 曾毅(2004.9) 앞의 책, p.65.

36)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수+0-14세 아동과 소년의 인구의 수)/노동인구의 수.

<그래프 4> 부양비율 추이



출처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4」.

http://kr.blog.yahoo.com/thegoldnews/MYBLOG/dist_frame.html?d=http%3A%2F%2Fkr.blog.yahoo.com%2Fthegoldnews%2F312%3Fm%3Dc%26amp%3Bno%3D312&s=n(검색일: 2009.4.30).

5. 큰 지역 차: 도·농, 발달지역·낙후지역 간의 노인 비율 확대

중국은 농촌 출생률이 도시보다 더 높으며 낙후지역의 출생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 현재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혹은 낙후한 중서부지역에서 발달한 동부의 연해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동한 인구 대부분은 청장년층이다. 청장년층의 대규모 유실로 21세기 초 농촌노인의 비율은 도시보다 더 높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낙후한 지역의 노인인구비율이 동부의 연해지역보다 더 높게 하였다.

현재 중국의 21개 성(구, 도시)은 인구고령화지역이다. 1982년 제3회 인구센서스부터 2004년까지 22년 동안 중국 노인인구는 매년 평균 302만 명이 증가하였고, 연평균 성장 속도는 2.85%이다. 이는 총 인구성장속도인 1.17%보다 빠르다. 2004년 말 중국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43억 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총 인구 수의 10.97%를 차지하는 것이다. 고령화 수준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곳은 상하이시(上海市)(18.48%), 톈진시(天津市)(13.75%), 장쑤성(江蘇省)(13.75%), 베이징시(北京市)(13.66%), 저장성(浙江省)(13.18%), 충칭시(重慶市)(12.84%), 랴오닝성(遼寧省)(12.59%), 산둥성(山東省)(12.31%), 쓰촨성(四川省)(11.59), 후난성(湖南省)(11.51%)과 안후이성(安徽省)(11.18%)등 8개 성(省)과 3개 직할시이다.³⁷⁾

상하이는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시 전체 총인구의 10%를 가장 먼저 초과한 지역이다. 상하이는 1979년에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10.2%를 차지하였다. 현재 상하이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2008년 상하이 노인인구와 실버산업 감독예측정보(2008年上海市老年人口和老齡事業監測信息)" 자료에 따르면, 상하이의 노인인구는 3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각종 양로비를 지원 받는 인원은 290.06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는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데, 그 원인은 양로비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2008년 양로비 재정지출은 900億元 정도이며, 그 중의 18%인 170億元 정도를 사회보험기금에서 보충하고 있다.³⁸⁾

37) 『中國人口統計年鑒』 2000, 中國統計出版社.

38) 趙飛飛(2009.4.1), "上海老齡化問題加劇 18%社保窟窿靠財政彌補", 「21世紀經濟報道」.

<표 6> 성(省)별 노인인구 분포

지역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	비율(%)
전국(명)	1188739	111212	9.36
北京	14554	1484	10.20
天津	9896	1074	10.85
河北	63501	5626	8.86
山西	31069	2268	7.30
內蒙古	22066	1802	8.17
遼寧	39317	4181	10.63
吉林	25067	2208	8.81
黑龍江	35193	3147	8.94
上海	16708	2381	14.25
江蘇	69503	7751	11.15
安徽	56247	5908	10.50
福建	32754	3301	10.08
江西	39945	3574	8.95
山東	85696	8350	9.74
河南	86460	6546	7.57
湖北	53408	5179	9.70
湖南	58382	6031	10.33
廣東	85649	6305	7.36
廣西	43442	3991	9.19
海南	7696	682	8.86
重慶	25850	3020	11.68
四川	75201	8261	10.99
貴州	34587	2870	8.30
雲南	41269	3074	7.44
西藏	2587	172	6.65
陝西	34383	3313	9.64
甘肅	23990	1877	7.82
青海	5045	329	6.52
寧夏	5560	347	6.24
新疆	18872	1285	6.81
浙江	45844	4874	10.63

주 : 2007년도 전국 0.09% 표본조사에 근거함.

출처 : 『中國統計年鑑』, 2008, p98.

제2절 문제점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최근 특히 두드러진다. 상하이를 예로 들면, 2008년 말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290여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나 차지한다. 해마다 경제활동인구는 5-6만 명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는 10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상하이시는 사회보장기금 보조비로 170억 원(2008년 기준)을 지출하였다.³⁹⁾

미국의 푸르덴셜그룹과 전략·국제연구센터는 중국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였다. 중국은 현재 매우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의 경제활동 인구의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되어, 노인인구의 상당 부분이 빈곤에 처할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 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00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16명의 노인을 부양하였는데, 2025년이 되면 2배가 되어 32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고, 2050년이 되면 또 다시 거의 2배인 61명을 부양해야 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한 명의 성인이 2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2030년이 되면 미국보다 더욱 심한 고령화 사회가 된다. 게다가 문제의 심각성은, 고령화의 조류가 밀려들더라도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가의 위치에 처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은 세계 제1위의 "미발전 선고령화(未富先老)"의 국가가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⁴⁰⁾

이렇듯 인구고령화는 중국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을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9) 최유식(2009.3.27), "中 경제수도 상하이 쇠락하냐", 『조선일보』.

40) "保德新集團:中國面臨老齡化問題 未富先老路需儘早應對"(2009.4.24), 『第一財經』.

1. 경제적 측면

고령화는 인구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한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자본공급 측면에서는 저축률이 하락하여 투자를 위축시킨다. 수요 측면에서는 건강, 의료,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실버산업의 발달을 가져온다.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노인 관련 공적 지출이 확대되어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될 것이며⁴¹⁾, 노인인구에 대한 지출과 보장 측면에서는 발달지역과 미발달지역의 격차 확대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면을 종합해 볼 때, 고령화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1) 저축률의 하락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15세-64세)가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의 노인부양비를 크게 증대시킬 것이다. <그래프 5>에서 보면, 유소년인구의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인부양비의 증가는 경제활동인구에게 경제적 압력을 가하게 된다. 자본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민간 저축률이 하락하게 된다. 생애소득가설⁴²⁾에 따르면, 노년기의 저축성향은 청장년기보다 낮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민간저축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민간저축률의 하락은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가용자금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투자위축이 향후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⁴³⁾

41) "고령화 사회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2006),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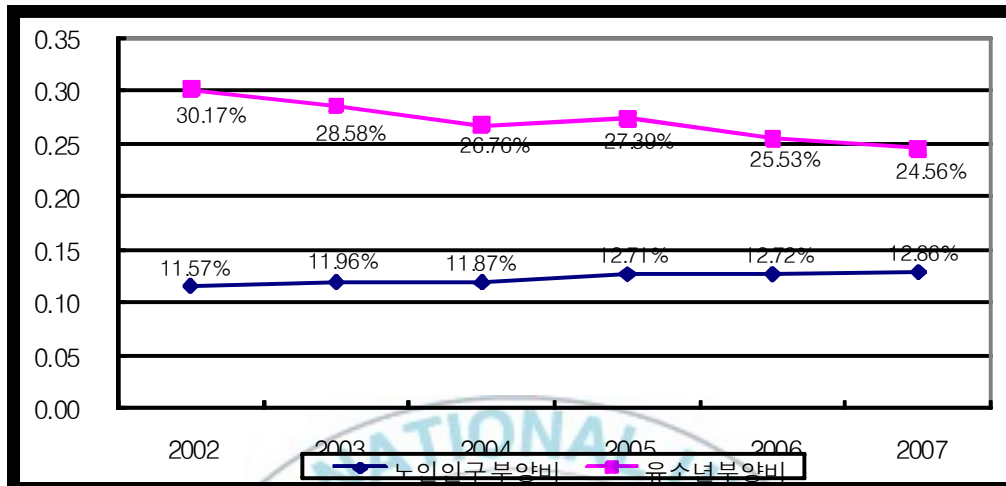
<http://blog.naver.com/pee20?Redirect=Log&logNo=140033681313>, (검색일:2009.5.15).

42) 생애소득가설은 안도-모딜리아니가 제기한 가설로써, 소비자의 소득수준이 일생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과 자산의 총량을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소득은 중년기 때 가장 높고,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낮아지는 현상을 설명한다.

-출처: <http://blog.naver.com/speed420?Redirect=Log&logNo=20046575999>(검색일:2009.3.27).

43) "고령화 사회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2006) 위의 글,

<그래프 5> 노인인구 부양비 및 유소년인구 부양비



주 : 0.090-0.099% 표본조사 결과임.

출처 : 『國家統計年鑑』 2002-2008.

2)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현재 중국은 방대한 노동력을 이용한 인구보너스에 기간에 놓여있지만 <그래프 3>에서 보듯이 2010-2015년을 고점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지금까지 인구 증가, 수명 연장, 경제활동 참가율 향상 등 노동공급의 증가에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에, 고령화 진전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여성 및 중·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노동시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으로 인해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조기 퇴출은 경제의 활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실업상태로 고령층에 진입함을 의미한다. 40-54세의 중장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9.55%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15-39세의 비경제활동인구는 0.26%씩 감소하고 있다. 노동 능력과 의사를 가진 중장년층의 조기 퇴출은 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더불어 풍부한 지적자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게 된다. 즉, 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

<http://blog.naver.com/pee20?Redirect=Log&logNo=140033681313>, (검색일:2009.5.15).

서 중장년층 인구가 노동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부양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⁴⁴⁾

3) 재정의 압박

고령화는 사회지출의 증가를 초래한다. 고령자의 상대적 증가는 노후의 생활보장의 중요한 3대 지주인 소득보장, 의료보장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각각에 지출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흔히 사회문제로서의 노인 문제 현상은 빈곤이나 소득저하로 인한 경제적 문제, 질병이나 건강악화 등 의료적 문제, 역할상실 등 사회적 문제, 그리고 고독이나 소외 등 심리적 문제로 정리될 수 있지만,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의 핵심은 소득의 중단이나 상실로 인한 문제이고, 우선적으로 과제가 되는 것은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는 것이 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노후 생활 중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서 장기적인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가동불능상황의 발생이다. 이 경우에는 상당한 재원이 장기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고령자의 생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다.⁴⁵⁾

그러나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의 부족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상하이는 이러한 양로연금의 결손을 재정으로 보충함으로써 인해 심각한 재정상의 압박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앙 재정이 양로보험에 지원한 금액은 2,093억 元에 이른다. 또한 중국의 양로보험은 개인은 60세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였으나 각종 비규범적인 조기 퇴직으로 평균퇴직연령이 53세까지 낮아졌다. 그 결과 상하이의 재정은 18%를 사회보험에서 충당하는 등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44) "고령화 사회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2006), 앞의 글.
<http://blog.naver.com/pee20?Redirect=Log&logNo=140033681313>, (검색일:2009.5.15).

45) "고령화 사회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2006), 앞의 글.
<http://blog.naver.com/pee20?Redirect=Log&logNo=140033681313>, (검색일:2009.5.15).

<표7> 중국 도시 퇴직 인원 및 양로보험금 지출 현황

연도	이직·퇴직 인원수 (만 명)	이직·퇴직 인원수/ 재직인원수	양로보험금 지출액(억 元)
1978	314	1:30.3	17
1980	816	1:12.8	50
1985	1637	1:7.5	150
1990	2301	1:6.1	472
1995	3094	1:4.8	848
1996	3212	1:4.6	1032
1997	3351	1:4.4	1251
1998	3594	1:4.0	1512
1999	3730	1:3.2	1925
2000	3876	1:3.0	2115
2001	4018	1:2.7	2321
2002	4223	1:2.6	2843
2003	4523	1:2.4	3122

출처 : 姜向群(2005), 『老年社會保障制度-歷史與變革』, 中國人民大學出版社, pp.123-124;
杜鵬(2006) 앞의 책, p.70에서 재인용.

재정 압박의 요인은 기본적으로 아래 네 가지이다. 첫째, 제도가 분산되고 담당부서가 나뉘어있어 상호조율이 잘 되지 않고 효율이 낮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 사회보장관리체제의 문제점은 사회화수준과 서비스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사회통합기금의 조달수준이 낮고 사회보장서비스발전이 불충분하며 사회보장주관부처가 분산되어 통일된 기구가 없다. 노동과 사회보장부가 전국 사회보험업무를 담당하고 민정부(民政部)는 사회구제, 유공자우대, 대민 행정 및 취업의료보험 등에 관한 재정 및 자금 관련 업무와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재정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 사회보장대우가 공평치 않다는 것이다. 즉 지역별 부담수준, 기업별 부담수준, 국민개인부담 등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주민에 대한 대우가 평등하지 않다. 셋째, 사회보장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유연한 고용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및 농촌주민에 대한 사회보장확대가 어렵다. 사회보장기금 관리 및 운영에 문

제가 있음으로 인해, 사회보장기금의 잠재적 재정위기가 표출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연기금투자채널이 단일하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양로보험의 "빈 구좌운영 (空帳運行)" 등으로 인해 많은 지역사회보장기금에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⁴⁶⁾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양로기금의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또 참여 기업의 자질 또한 높지 않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납에 대한 문제이다. 일부 기업은 고의로 임금 총액을 속여 총괄기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혹은 은행계좌로 전환하여 납부하지 않고 연체를 한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양로보험의 총괄에 참여하는 기업은 30%의 임금 총액을 의무 납부의 기준액에 넣지 않는다고 한다. 둘째, 보험가입이 완전하지 않아 보장률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재정이 튼튼한 기업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재 외자기업, 사영기업, 개입기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장률을 확대하고 있다.⁴⁷⁾

2. 사회적 측면

1) 동·서부 간 부양부담의 불균등성

46) Li Ming Fu(2007),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국제노동브리프, pp.57-58.

47) 김태곤(2002), "중국 사회보험 연구-양로보험의 개혁 과정과 문제점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24집, p.79.

<표 8> 지역별 연령 구성과 부양비

지역	인구수(%)			부양비(%)		
	0-14세	15-64세	65세이상	총부양비	유소년	노인
上海	7.97	77.78	14.25	28.56	10.24	18.32
重慶	18.93	69.39	11.68	44.11	27.27	16.84
江蘇	14.26	74.59	11.15	34.07	19.12	14.95
四川	19.14	69.87	10.99	43.11	27.39	15.72
天津	11.35	77.80	10.85	28.54	14.59	13.95
浙江	14.66	74.71	10.63	33.86	19.62	14.23
遼寧	12.68	76.69	10.63	30.40	16.53	13.87
安徽	20.87	68.63	10.50	45.72	30.41	15.31
湖南	16.78	72.89	10.33	37.19	23.02	14.17
北京	9.63	80.17	10.20	24.72	12.01	12.72
福建	17.61	72.31	10.08	38.28	24.35	13.94
山東	15.41	74.85	9.74	33.61	20.59	13.02
湖北	15.71	74.40	9.71	34.39	21.10	13.28
陝西	17.36	73.00	9.64	36.98	23.78	13.20
廣西	21.91	68.90	9.19	45.12	31.79	13.33
江西	22.65	68.40	8.95	46.19	33.11	13.08
黑龍江	13.16	77.90	8.94	28.36	16.89	11.48
海南	21.35	69.79	8.86	43.29	30.59	12.70
河北	16.76	74.38	8.86	34.44	22.52	11.91
吉林	13.11	78.08	8.81	28.07	16.79	11.28
貴州	27.22	64.48	8.30	55.09	42.22	12.87
內蒙古	15.69	76.14	8.17	31.33	20.61	10.73
甘肅	20.70	71.47	7.83	39.92	28.97	10.94
河南	20.37	72.06	7.57	38.78	28.27	10.51
雲南	22.53	70.02	7.45	42.81	32.17	10.64
廣東	19.13	73.51	7.36	36.04	26.03	10.01
山西	19.53	73.17	7.30	36.67	26.69	9.98
新疆	21.44	71.75	6.81	39.38	29.89	9.49
西藏	21.72	71.63	6.65	39.57	30.31	9.26
青海	22.42	71.04	6.52	40.47	31.55	9.19
寧夏	23.47	70.29	6.24	42.26	33.39	8.88

주 : 2007년도 전국 0.09% 표본조사 결과임.

출처 : 『國家統計年鑑』 2008, p.97에서 재작성.

<표 8>은 중국의 각 성·시를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순으로 만든 표이다. 이 표를 통해서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상하이의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닝샤(寧夏)의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대체로 동부로부터 서부로 갈수록 노인인구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상위 10개 성·시 가운데 6개가 동부지역에 속하며, 하위 10개 성·시 가운데 6개가 서부에 속한다. 셋째, 유소년인구의 비율은 동부보다 서부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상하이의 유소년인구 비율이 7.97%로 가장 낮으며, 구이저우(貴州)의 유소년인구 비율은 27.22%로 가장 높다. 넷째, 노인인구 비율과는 반대로 서부지역이 동부지역에 비해 유소년인구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총 부양비의 전국 평균(37.42%)은 산시(山西)와 네이멍구(內蒙古)를 제외한 서부지역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다. 특히 구이저우(貴州)의 총 부양비는 55.09%로 전체 성·시 가운데 가장 높다. 이를 통해 볼 때, 서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소득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더 무거운 부양부담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경제적 요인이다. 동부에 비해 서부가 소득과 위생수준이 낮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다. 이것이 서부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을 낮추는 한 요인이다. 둘째, 정책적 요인이다. 계획 출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원적이다. 도시의 경우, "1자녀", 농촌의 경우 "2자녀", 소수민족의 경우 "3자녀"로 제한하고 있으며, 심지어 특정 지역, 예컨대 시짱 자치구의 경우 자녀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⁴⁸⁾ 따라서 농촌인구의 비중이 높고 소수민족의 비중이 높은 서부 지역에서 유소년인구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⁴⁹⁾

48) 湯兆雲(2005) 앞의 책, 이중희(2007), p.311에서 재인용.

49) 이중희(2007) 앞의 책, p.309-311에서 재인용.

2) 도·농 간 부양부담의 불균등성

<표 9> 연령대별 인구구성(2005)

단위: 천명, %.

	합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유소년 부양비	노인 부양비
도시 (城鎮)	515,999	387,506 (16.1)	387,506 (75)	45,076 (8.7)	21.5	11.6
농촌	737,066	158,449 (21.4)	516,390 (70)	62,227 (8.4)	30.68	12.05

출처: 『中國人口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2005, pp.17-19; 이중희(2007), p. 312에서 재인용.

<표 9>에 의하면, 2005년에 노인인구가 농촌은 도시보다 0.3% 낮다. 이는 농촌지역의 사망률이 도시보다 높고, 일부 농촌호구 소지자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호구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소년인구의 비율은 도시(16.1%)보다 농촌(21.4%)이 높다. 이는 농촌의 경우 두 자녀를 허용한 결과 농촌의 출생률이 도시보다 높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반면, 도시의 경제활동인구는 75%인 반면, 농촌은 70%에 불과하다.

그 결과, 부양비에서도 도농 간에 격차가 있다. 노인 부양비에서는 농촌이 청장년층의 부족으로 인해 도시보다 높다. 또한 유소년 부양비에서는 도농 간에 격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총 부양비에서 농촌은 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은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를 종합하면, 노인인구의 부양비는 서부지역보다 동부지역이 높다. 하지만 노인인구의 부양비에서도 도시보다 농촌이 높고, 유소년 부양비에서는 서부나 농촌이 동부나 도시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제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에서 부양부담이 더욱 무겁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⁵⁰⁾

50) 이중희(2007) 앞의 책, p.312-313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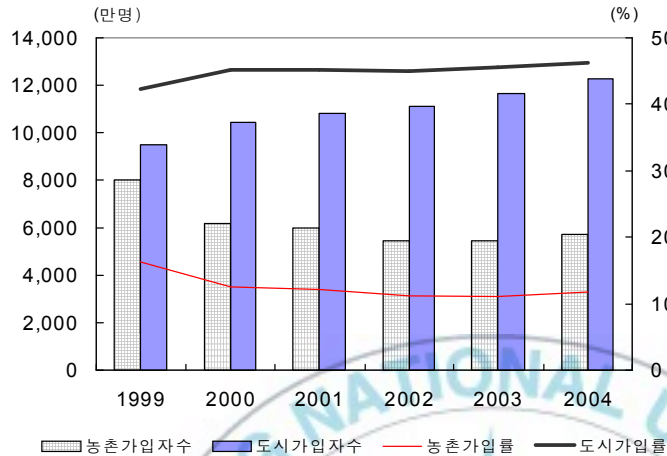
3) 도·농 간 의료서비스의 불균등성

노인들은 질병의 저항력이 취약하며 신체적 기능이 떨어짐으로, 노인의 료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료시설과 의료조건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노인의료서비스 질도 향상되었다.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의료위생소가 있으며, 심하지 않은 병은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아직 원활하지 못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의료보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무원, 교사, 대기업 종업원 등으로, 이들은 퇴직하여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보험혜택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한정되어 있어, 좋은 약을 사거나 큰 병을 치료하려면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이들과 달리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영기업, 외자기업 종업원은 사회의료보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기업에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사회의료보험 가입을 회피한 까닭이다.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대부분 사회의료보험 제도를 모르고 있으며, 병은 자기 몸에서 생긴 것이므로 당연히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가벼운 병이 나면 그냥 내버려두거나 스스로 약을 사먹고, 큰 병이 나면 자녀들에게 의지한다. 자녀가 의료비용을 담당하지 못할 경우 아예 치료마저 포기한다. 농촌의 의료시설과 의료조건도 도시에 비해 낙후되어, 전문적인 의료기술을 가진 병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농촌 노인들의 의료에 지출은 제한적이며 자기 생명을 아주 가볍게 본다.⁵¹⁾

51) 樊金娥·陳曉敏·高春蘭(2002), "城鄉爲勞服務比較研究", 民政部民政理論研究課題, 고춘란·김선희 (2007) 앞의 책, p.39에서 재인용.

<그래프 6> 중국의 연금 가입자 및 가입률



주 : 도시가계는 (가처분 소득 - 소비지출) / 가처분소득, 농촌가계는 (현금수입 - 현금지출) / 현금수입으로 산출

출처 : 『일본통상백서 2006』,

http://kr.blog.yahoo.com/thegoldnews/MYBLOG/dist_frame.html?d=http%3A%2F%2Fkr.blog.yahoo.com%2Fthegoldnews%2F312%3Fm%3Dc%26amp%3Bno%3D312&s=n(검색일:2009.4.3).

4) 도·농 간 사회복지 서비스의 불균등성

사회경제 성장과 도시 발전에 따라 중국 도시의 사회복지서비스 역시 날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그들의 이익을 유지하는 서비스 시설과 봉사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도시에는 지역사회 서비스센터가 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건강보호센터, 민간에서 운영하는 노인수발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는 노인을 위한 간이식당, 미용실, 마트, 농산물시장, 세탁소, 목욕탕 등 다양한 영리 혹은 비영리 서비스 시설들이 있고, 자기 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노인들에게는 퇴직금이란 자체가 없으며, 모든 생활

비용은 본인의 노동소득 혹은 자녀들이 제공한다. 농촌의 노인들은 노동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농사일을 해야 하며, 일단 노동력이 상실되면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어떤 농촌지역은 이발소, 목욕탕, 매점조차도 없어 일정 규모를 갖춘 지역으로 와야 혜택을 볼 수 있다. 향(鄉)에는 경로원(敬老院)있지만, 자녀가 없고 노동력을 상실한 독거노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 또한 경로원의 운영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서 부담해야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촌마을에서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독거노인을 경로원에 보내지 않고 마을에서 책임지고 보살피겠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농촌노인들은 도시노인들과 달리 자신의 노후생활을 결정할 수 없다. 단지 가족만이 노인의 노후생활을 담당하고 사회보장의 역할을 한다.⁵²⁾

3. 개인적 측면

1) 노인인구의 경제적 빈곤

도시의 일부 노인을 제외하고 대다수 중국 노인들은 사적소득이전⁵³⁾이 주 소득원이다. 이는 가정의 노인부양 부담을 가중시키며,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한다.

빈곤노인 문제는 선진국에서조차 해결하지 못한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중국에서도 노인 빈곤층은 총 인구의 1/4이나 된다. 상대적 빈곤(중위소득 50~60% 수준 이하 소득) 개념으로 빈곤 인구를 계산하면, 중국의 빈곤인구 비율은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상대적 개념에 의한 선진국의 빈곤노인 비율은 전체 노인의 10% 정도인데 반해, 중국의 빈곤노인은 30%이상을

52) 고춘란·김선희(2007) 앞의 책, p.40.

53) 사적소득이전이란 자녀나 친인척 등 비공식 지지망의 생존자가 다른 사람에게 현금이나 현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고받는 행위가 생존자 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산과 차이가 있고, 재산형태보다는 현금 또는 현물 등의 형태로, 목돈형태보다는 일상적인 현금거래가 주로 된다는 점에서 증여와 구별된다. -출처: 김진경·송현수(2008),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간의 사적소득이전”, 『사회보건연구』 Vol.24 No.3, p.79.

차지한다. 중국에서 이렇게 노인빈곤층이 높은 원인으로는 연금제도의 미성숙, 과거 직업생활의 불안정, 저임금 노동 종사, 조기퇴직, 자녀양육·교육·결혼 등의 지출, 가족의 부양의식 약화, 개인적 노후준비 미흡, 노후 재취업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⁵⁴⁾

2) 소외와 고독

중국의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55-60세에 퇴직을 하기에, 이들은 많은 시간을 고령기로 지내게 된다. 이들에 대한 정부 정책의 부재와 가치관의 변화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중국 노년층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 간 교육 수준의 차이와 세대 간의 차이이다. 이는 부모 자녀 간 대화의 기회가 줄어들고 집안일의 결정에서 노년층이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핵가족화 및 도시화로 인한 지리적 거리의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 만남의 기회가 감소되었다. 셋째, 조기 퇴직이다. 중국의 노인은 이른 나이에 퇴직함으로 인해 건강한 상태에서 20년 이상을 지내야한다. 넷째, 이들이 퇴직 후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60세 이상의 노인 중 여가활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거의 참여하지 않는 노인이 70% 정도이며, 사회봉사활동 참여자는 10% 이내에 불과하다.⁵⁵⁾

이러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중국 노인은 퇴직 후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없음으로 인해, 이들의 여생은 고독하고 무의미한 시간으로 변해 버린다.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고독하고 쓸쓸히 여생을 보내는 것은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사회적 낭비이다.

54) 杜鹏(2006) 앞의 책, pp.39-48.

55) "고령화 사회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2006) 앞의 글.

<http://blog.naver.com/pee20?Redirect=Log&logNo=140033681313>, (검색일:2009.5.15).

3) 간병문제

간병문제 또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운영되는 간병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고령자는 자택에서 가족 부담으로 간병을 받고 있다. 가족 부담으로 간병보호를 받는 것도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는 경우이다.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는 대부분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한다. 이로 인해 가족의 노동력 상실 및 사생활의 상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른 방법은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다. 대도시에서는 농촌출신 여성을 입주형식으로 고용하여 간병을 하게 한다. 이는 여유가 있는 일부 가정에만 해당된다.

둘째, 지역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고령자는 가도(街道)사무소(한국의 동사무소에 해당하는 최소단위 행정기구) 또는 가도사무소의 고령위원회, 지방행정의 민정국(民政局), 가도병원(한국의 보건소에 상당함), 주민위원회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택에서 생활한다. 서비스의 내용은 가도병원의 의사나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가정병상" 제도와 "노인의탁시설(托老所)"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유상이지만 그 비용은 저렴한 편이다. "노인의탁시설"은 아침 출근 시에 노인을 해당 시설에 모셨다가 저녁에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것으로, 부부 맞벌이가 보편적인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가족의 간병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가도사무소 서비스의 일종이다.

셋째, 가족도 없고 돈도 없어 어느 방법에도 의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주민이나 주민위원회의 직원이 주간에 노인 간병을 맡는 경우다.

넷째, 도시지역에서는 매월 저렴한 금액을 받고 노인의 간병을 맡아주는 양로시설도 등장하였다.⁵⁶⁾

노인의 간병은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에서는 국가시설 혹은 지역사회를 통한 도움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노인 간병은 기본적으로 가족이 직접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가족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것 또한 중국의 현실에서 보면 그다지 쉬운 것은 아니다.

56) 박광준(1999) 외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세종출판사.

4) 노인의 재취업문제

취업과 재취업은 소득 증대가 일차적 목적이지만, 이는 또 달리 여가활동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중국에서는 노인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연령차별, 직종 제한 등으로 노인의 취업 및 재취업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취업 비율은 31%에 불과하며, 취업노인 중 55%가 농림어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또한 노인 취업 비율 가운데 76%가 무임금 취업자이다. 임금 취업자 중에서 14%만이 정규임금 노동자이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 중 정규임금 취업자는 8%에 불과하다.⁵⁷⁾ 이는 중국에서 노인의 재취업으로 인한 경제문제의 해결 및 여가활동이 거의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57) 鄭玄波(2009.3.3), “中國老年人就業狀況及有關政策”,
<http://www.calss.net.cn/n1196/n1256/n1550212/n1591488.files/n1591443.doc>.

제4장 고령화 정책변화 및 대책

올해 전인대에 참가한 한 대표는 업무 보고에서, 양로사업 발전을 국가 내수산업 촉진 계획에 포함시켜, 노인에 대한 재정 투입을 증가시키고 노인서비스를 확대하며 노인에 대한 의료 위생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⁵⁸⁾ 이러한 건의는 중국 고령화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본 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고령화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현 고령화시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고령화 정책의 변화

중국의 고령화 정책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982년부터 2000년까지로 태동기이다. 1982년 중국은 UN의 세계노인대회 참가를 계기로 이듬해 "중국고령문제 전국위원회(中國老齡問題全國委員會)"를 결성하였다. 1994년에는 국가계획위원회와 민정부 등 정부 관련 기관이 연합하여 "중국고령업무 7년 발전 강요 1994-2000년(中國老齡工作七年發展綱要 1994-2000年)"을 발표하였다. 1995년에는 "중국자선기관(中華慈善總會)"의 주도로 전국 주요 도시에 모범노인 아파트, 경로원, 노인병원의 건립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고령화 정책의 특징은 정부 주도의 고령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 200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발전 단계이다. 이 시기는 시장화의 원리에 입각한 고령화 정책 추진 시기이다. 2001년 7월, 국무원은 "10차 5개년 계획 강요("十五"計劃綱要)"에서 노인사업의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강요에서 정부는 노인사업을 지원하되 사회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호응하여 노인사업을 변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가 지도력을 발휘하되 실질적인 운용은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것이다.

58) 許祖華·車玉明·趙超(2009.3.10), "人大代表熱烈討論我國社會老齡化的問題", 「新華網陝西頻道」.

이를 통해 사회 각 부분의 역량을 동원하여 노인사업의 사회화와 산업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국무원은 "10차 5개년 계획 강요("十五"計劃綱要)"를 발표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강요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발전의 방향을 고려하여 사회에 호응하여 노인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국가가 투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과거 국가 주도의 노인사업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호응하는 노인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노인사업을 국가가 전담하던 것에서 벗어나, 국가가 기본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되, 실제로 많은 부분은 시장경제 원칙에 맡긴다는 것이다. 셋째, 가정양로와 사회양로의 상호결합을 통해서, 중국 특색의 양로보장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국가가 부담하던 부분을 국가, 사회, 가정에 나누어서 담당한다는 원칙하에, 노인 복지의 기본 부담을 가정에 넘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인간중심(以人爲本)"의 원칙하에 노인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소강사회(小康社會)의 기본 방향에 호응하여, 사회 각 방면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하겠다는 큰 원칙하에 고려하여 사회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각 지역에 적합한 정책과 해당 주체에 관한 내용이다. 중국 정부는 농촌지역의 노인 문제를 중시할 것이며, 빈궁지역과 변경지역의 노인문제에 중점을 두는 등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복지정책을 실시한다고 천명하였다. 이런 노인복지 정책의 실시의 주체도 국가가 아닌 기층이 맡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드러나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혜택의 제공이다. 경제적 혜택은 도시와 농촌을 구별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도시의 경우, 양로보험과 기업의 퇴직 시 지불되는 양로금 제도를 완비하여 노인의 경제적 생활의 안정화와 향상을 도모한다. 농촌의 경우, 토지보장과 가족 양로제도를 통해 노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둘째, 의료보장의 제공이다. 의료보장은 사구(社區)를 기본으로 하는 기초적 노인의료보장 체제의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이 역시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 도시에 더 많이 중점을 두었다. 셋째, 노인서비

스의 제공이다. 도시의 경우, 노인서비스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다. 노인전용아파트, 사회복지원, 노인보호원 등 노인서비스 시설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노인서비스 자원을 개발 육성하고 이를 연결할 인터넷망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농촌의 경우, 향진(鄉鎭)의 양로원 설치율 90%를 목표로 하였다. 넷째, 노인 존중 문화, 문화와 여가 활동의 활성화이다. 기본적으로 노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노인을 도우는 사회 환경과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노인의 문화 여가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요 대도시에는 종합성 노인 문화활동 센터를 건립하고, 현(縣) 단위에는 노인 문화활동 센터를 설립하며, 향진 단위에는 노인회관을 설치하는 것이다. 다섯째, 노인의 권익 보장이다. 노인의 합법적 권익 보장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그 지역에 맞는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였다. 베이징은 "베이징시 10차 5개년 시기 고령사업 발전 계획(北京市"十五"時期老齡事業發展規劃)"을 발표하였고, 고령화 추세가 빠른 저장(浙江)성도 "저장(浙江)성 고령사업 발전 "10차 5개년" 계획(浙江省老齡事業發展"十五"規劃)을 발표하였다.⁵⁹⁾

제2절 고령화 사회의 대책

고령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의료 및 요양서비스와 연금 등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 공공재정에 대한 압력이 증대된다.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재원 확보와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정부의 적자 재정을 최소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59) 강경락, 앞의 글, pp.33-36.

1. 거시적 대책

1) 대도시 건설

2007년 도시화 수준은 44.9%에 달하여 2002년의 39.1%보다 5.8% 포인트 상승했다.⁶⁰⁾ 도시화는 생산성 제고, 경제효율의 개선을 유발하고, 도시건설 투자를 통해서 유효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인적자원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노인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호구제도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거대 도시 권역을 확대·발전시키는 도시화 발전 전략이 필요하며, 아울러 서비스 산업을 동시에 육성 하는 종합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서비스 산업은 기타 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크고, 내수시장 확대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2003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0,726달러를 넘는 고소득 국가들(World Bank 분류 기준)에서의 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은 평균 72.2%에 이르고 있지만, 같은 해 중국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41.2%에 그쳤다.<표 10>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876달러에서 3,465달러 사이에 있는 중·저소득 국가들의 평균인 46.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⁶¹⁾ 게다가 2007년 GDP 대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40.1%인 것과 비교하면, 고용 측면에서 진행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표10,11 비교). 또한 현재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도·소매업, 요식업 등 전통적인 의미의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고 금융, 보험, IT, 물류, 특허, 컨설팅 등 소위 첨단 서비스산업 분야의 발전은 미미한 형편이다.

60) 2003년~2006년 도시인구는 매년 1,833만 명 증가하였고, 농촌인구는 평균 매년 1,098만 명 감소하였다.

61) 윤상하(2006), "중국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비즈니스 기회" 『LG 주간경제』 p.37.

<표 10> 중국의 산업별 GDP 대비 비중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1차 산업	12.8	13.4	12.2	11.3	11.3
2차 산업	46	46.2	47.7	48.7	48.6
3차 산업	41.2	40.4	40.1	40.0	40.1

출처: 『中國統計年鑑 2008』, p.38.

<표 11> 중국의 산업별 취업 비중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1차 산업	49.1	46.9	44.8	42.6	40.8
2차 산업	21.6	22.5	23.8	25.2	26.8
3차 산업	29.3	30.6	31.4	32.2	32.4

출처: 『中國統計年鑑 2008』, p.109.

그러므로, 향후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나 기술, 인적자원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서비스 업종의 발달이 요구되는데, 특히 여기서 주의해서 고려할 부분은 서비스 산업의 내용이다.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현재 공공성을 띠는 사회 서비스가 2007년 기준 57.8%로 서비스 전체 고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생산자 서비스는 전체 서비스 고용의 20.5%로 높은 담을 차지하지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유통 서비스는 2003년 14.9%에서 2007년 16.8%로 고용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들은 국민경제의 서비스 비중 증대와 더불어 1980년대부터 주요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생산자서비스,⁶²⁾ 부문의 집중을 경험

62) 생산자서비스(product service)란 최종소비보다는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 부문을 의미한다. 생산자서비스는 금융, 보험, 부동산업을 의미하는 FIRE산업과 법무회계서비스, 기술공학서비스, 연구개발,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등의 사업 서비스(business service) 부문을 포함한다.

한 바 있다.⁶³⁾

<표 12> 중국의 서비스 부문별 도시취업자수

(단위: %)

서비스 부문	2003	2004	2005	2006	2007
유통서비스	14.9	15.2	15.9	16.3	16.8
생산자서비스	23.5	22.6	21.4	20.8	20.5
개인서비스	5.1	5.1	5.1	5.0	5.0
사회서비스	56.5	57.1	57.7	58.0	57.8

출처: 『中國統計年鑑 2008』, p.111.

중국의 사회서비스 비율이 높은 것은 현재 고용 안정 측면에서 도움이 될지 모르나, 사회서비스 특성상 정부 재정의 적자를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국민전체의 부담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다. 생산자 서비스 비중을 조금 씩 확대하여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는 국가 전략이 요구되는데, 산업 생산성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거시적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⁶⁴⁾

2) 풍요로운 신농촌 건설

대도시화와 더불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풍요로운 농촌 건설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도농 격차가 확대되면서 2007년 도시와 농촌 주민 간의 가처분소득 비율은 3.3대 1로 격차가 벌어지는 등 농민들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이러한 수입 격차가 교육, 문화, 사회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도시주민에

63) 예를 들어, 미국 대도시들에서는 1980년부터 1988년 사이 전체 서비스 산업이 평균 24.3% 증가한데 비해, 생산자서비스 부문은 무려 50.6%가 증가하여 동기간 동안의 종사자 증가만 해도 4651천명에 이른다.

64) 최근 중국의 노동생산성의 성장률이 선진국 및 다른 개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는 보고는 있으나 아직도 주요 중공업의 노동생산성은 한국의 30%수준에 거치고 있어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국가 수준의 지도가 필요하다.

게 주어지는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고려해 볼 때, 실제 도농 격차는 5~6배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⁶⁵⁾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의 낙후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중국으로서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⁶⁶⁾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이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병하의 감소 등 환경 변화는 아시아 농경지 관개 시스템의 절반가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바⁶⁷⁾ 향후 식량은 중요한 자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대도시화와 공동으로 농촌의 부농화가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농촌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식량의 자급자족화(自給自足化)와 나아가 식량 대국화의 목표 달성이 요구된다. 더불어 농촌의 발전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를 흡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은 정년이 없고 대가족 사회를 이루고 있어, 연금 및 일자리 제공이라는 부분에서 국가의 책임이 도시보다 작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구호만 앞서고 임시방편식의 농촌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농촌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은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기계농업 확대,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적 농산물 개발 등에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더불어 분배라는 차원에서 농촌 의료 및 문화시설 확대가 동시에 요구된다.

3) 실버산업의 육성

중국 실버산업⁶⁸⁾은 정부의 관심 부족, 투자부족으로 초기단계에 진입해 있고, 그 수준 또한 정부경영 또는 정부에서 보조금 제공 위주의 낮은 수

65) 2008년 농민의 1인당 생활소비 지출액은 3천661위안으로 도시인구 1인당 지출액인 1만1천243위안의 3분의 1 수준이다.-출처: "中 도시-농촌 간 생활소비 수준 10년 차이"(2009.4.16), 「연합뉴스」.

66) 2007년 말 총인구는 13억 2129만 명으로 조사 되었고, 그 중 농촌 인구는 7억2750만 명으로 55.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60세 이상 노년인구도 1억 53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6%를 점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인구 중 73.7%가 농촌 노인이다. - 출처: 「華程網」(2009.6.1), http://www.huachengnz.com/article/view_21273.html.

67) "유엔, 기후변화로 식량위기 급속 악화"(2009.2.18), 「연합뉴스」.

68) 중국에서는 老齡產業 또는 銀髮產業으로 사용되고 있다.

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실버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현지 업체가 상당히 적고 중·소규모 업체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2005년 말 현재 중국의 각종 사회복지원, 양로원, 노인가파트, 노인간병병원 등 양로기구는 39546개, 침상 수 149.7만개이며, 그 중 농촌 양로원이 29681개소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⁶⁹⁾

그러나, 구매력평가(PPP),⁷⁰⁾를 기준으로 한 경제규모로는 중국의 총 생산이 10조 달러로 일본의 4조2천억 달러, 독일의 2조6천억 달러를 따돌리고 13조 달러인 미국의 뒤를 이어 2위에 올라 있다.⁷¹⁾(2007) 세계은행(World Bank)은 중국의 PPP 기준 1인당 GDP가 지난 2004년 이미 5400달러를 넘어 2008년에는 6000달러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경제학적으로 PPP 기준 1인당 GDP 5000달러는 소비시장 팽창과 소비수준 고급화가 본격화되는 분수령이다.⁷²⁾(2008) 한국의 1980년대 중반에 해당하는 시기로 중국의 소비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 대국화는 고령화에 따른 중국의 실버산업을 발전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실버산업의 발전은 관련 산업의 연관 효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생활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퇴직연령 조정과 노인의 일자리 창출

급속한 고령화로 현행 퇴직 연령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즉 법정 퇴직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시켜야 한다.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퇴직연령은

69) 중국 사회과학원 식품영양품 산업감독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노인용품에 대해 만족하는 소비자는 11% 불과하고 노인복의 경우 만족도가 1% 불과하며 약 28%의 소비자는 원하는 제품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

70) PPP: 구매력 평가지수는 Purchasing Power Parity의 약자로 환율을 각국 화폐의 구매력의 차이로 결정, 즉 국가별로 차이 나는 가격수준을 감안하여 환율을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2005년 8.3원대 1달러의 명목환율보다 약 2원을 1달러의 구매력으로 보고 있다.

71) "중국 독일 제치고 제3의 경제대국으로", (2007),
http://csf.kiep.go.kr/bri/column/world_view.aspx?seq=22476&fm=1 (검색일:2009.6.27).

72) "5대 키워드로 본 중국시장 공략법", (2008),
http://cafe.naver.com/imba9.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37
 (검색일:2009.6.27).

60세에서 65세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 대안으로써, 2008년부터 매년 퇴직기간을 6개월씩 연장해 주게 되면, 2017년에는 퇴직연령이 65세가 되며, 65세까지를 중국 법정 퇴직연령으로 규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하이테크 기술 같은 분야의 고급 노인 노동자들의 퇴직 연령을 연장해야 한다. 건강만 허락하면, 내부 심의를 거쳐 고급인력 노인 노동자들에게 5년에서 10년까지 퇴직을 연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단, 회사 사정에 따라 노동의 유연성은 높아질 수 있다.

2. 미시적 대책

1) 인적자원 개발로 경쟁력 강화

중국은 인구만큼이나 인력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미국이 1871-1913년 시기 영국을 따라잡을 때나 일본이 1953-1993년 시기에 미국을 따라잡을 때의 경험을 보면,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발전시켜, 발 빠르게 선진국과의 노동력 수준의 차이를 줄여 나갔다. 현재, 교육수준, 교육기회, 교육자원 측면에서 볼 때, 중국농촌은 도시에 비해 너무 낙후된 상태이다.⁷³⁾ 대도시에서는 풍부한 교육자원과 완벽한 교육체계, 평균적인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하지만 빈곤한 지역에서는 아직도 문맹률과 반문맹률이 높다. 농촌인구가 끊임없이 도시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도·농간 교육 수준의 차이로 도시에서 일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자원에 대한 투자를 농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9년 의무교육을 공고히 하고, 그 기초위에 정부와 기업이 연계되어, 농촌 중등학교에서의 직업훈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농촌노동력은 도시의 노동력공급의 주요 원천이므로 노동력의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반드시 이

73) 중국의 도·농간 소득격차는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2.57배이던 것이, 뒤에 2000년 2.79배, 2007년 3.33배로 더욱 벌어졌다. “清議：中國經濟10年內將超越美國”，
<http://hi.baidu.com/wzzgq999888/blog/item/913857196951617ddab4bddf.html>, (검색
일:2009.06.27).

부분의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2) 양로보험체계의 보완

세계선진국가의 경험에서 보면, 효율적으로 인구고령화의 도전에 대응하려면 반드시 고령화 사회가 오기 20~30년 전에 적당한 사회양로보장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1960년대에 출생한 인구는 2020년을 전후로 노령화 단계에 처하게 된다. 그 때가 되면 중국의 인구고령화의 속도는 갑자기 빨라지며, 인구고령화의 정점에 달하게 된다. 또 총 부양율은 2013년에 최저치에 달했다가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추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빨라져, 부양률이 최저치에 달한 다음 10~20년이 지나지 않아 최고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만약 향후 20~30년 내에 사회양로보장체계를 재확립하지 못하면, 고령화의 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중국의 현재 사회양로보장체계는 아주 불완전하다. 도시와 농촌의 노동력시장의 분화로 농촌노년인구의 사회보장이 대단히 미약하고, 도시사회양로보장제도는 계획체제에서 시장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

2003년 말까지, 중국에서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억5천5백6명에 달했고, 기금수입이 3680억 원, 지출이 3112억 원, 이익이 2207억 원이었다. 비록 현재의 기본양로보험이 퇴직자의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커다란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그 범위가 아직도 작아서, 도시인구 중의 일부분만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농촌인구는 기본적으로 기본양로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다. 양로보험의 기본목적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기본생활안전을 보장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 양로보험제도의 개혁으로 사회 대다수 사람들 모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기본사회양로보장체계를 확립해야 고령화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

3) 유연한 인구정책

지난 1979년부터 한족(漢族)에 한하여 실시된 "1가구,1자녀" 정책의 제

도 수정이 시급하다. 중국정부는 아직도 확고한 방침을 내어 놓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지역별 상황에 따른 유연성 있는 정책 시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인구통제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상하이는 출산조건을 완화해도 출산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시정부 지원책 등 제도적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출생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구분 통제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다음으로, 인구 성별구성을 개선해야 한다. 남아선호사상이라는 동양적 사고가 아직 존재하고 있어 출생 성별비율이 아직도 불평등하다. 여자 아이와 부녀자의 경제사회지위를 높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법률제도를 강화하여 태아성별의 감정을 제도적으로 막아 인공유산이라는 사회적 병폐를 차단해야 한다.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21세기는 인구 고령화의 세기로, 현재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또한 수많은 개발도상국가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 또한 1999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기에, 개발도상국 가운데 빨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전 세계의 노인인구 총수의 1/5를 차지한다. 중국의 고령화는 중국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은 1971년 계획 출산 정책을 실시한 이래,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추세를 보여 왔다. 고령화 추세는 중국의 모든 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고령화 추세의 정도와 속도는 미래에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변수로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고도 경제 성장을 지속해 왔지만, 이후에도 그것이 계속 가능할 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발전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률의 하락, 사망률의 하락 및 자연증가율의 하락이다. 둘째, 정책적인 원인이다. 1950년대부터의 느슨한 인구정책, 1970년대의 만(晩)·희(稀)·소(少) 정책 및 1980년대 계획출산 정책까지 정부의 인구정책은 점점 엄격해졌다. 아울러 기존 정책의 수정과 보완으로 인해 자연증가율이 점차 줄어들었다. 바로 이것이 중국 고령화가 가속화된 원인이다.

중국 고령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 비율 중에 7%에서 14%까지 증가된 시간은, 선진국이 45년 이상 걸리는 것에 반해 중국은 2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둘째, 초고령 노인 수가 급속하게 증가되었다. 전체 노인인구 중에 8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이다. UN의 통계

수치에 의하여 1990년에서 2050년까지 중국 8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연평균 4.2% 속도로 증가될 것이라 보고 있다. 셋째, 중국의 노인인구 총수는 세계 1위이다.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4억 명에 이르게 되어, 전 세계 노인인구의 1/4을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21세기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다. 넷째, 노인 부양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저사망률의 추세 아래 노인 부양비가 현재의 0.11에서 2020년에는 0.17 혹은 0.19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2050년 중국 노동인구의 부담은 2000년의 3.4배에서 4.1배로 될 것이다. 다섯째, 지역격차가 날로 뚜렷해졌다. 즉 동-동, 발달지역-낙후지역 간의 노인 비율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은 도시의 고령화 수준이 농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중국의 상황은 이와 다르게 중국 농촌의 고령화 수준이 도시보다 1.24% 높다.

중국 고령화는 사회 발전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경제적 측면에 보면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노인부양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증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노동력 부족 문제도 초래하였다. 사회적 측면에 보면 제도적 문제, 양로연금 지출 문제, 의료 보장 문제 등이 나타났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인의 빈곤문제, 고독과 소외, 재취업의 불가능 등이 나타났다.

고령화 문제에 대해 중국정부는 정책을 통해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은 2001년을 기준으로 두 시기로 나뉜다. 2001년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노인문제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국가 주도의 계획에서 시장경제 주도로 정책의 변화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을 거시적 미시적 관점으로 고찰하였다. 거시적 대책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대도시 건설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의 발전이다. 둘째, 농촌의 발전을 통한 노인인구의 노동력 유지이다. 셋째, 실버산업의 발전을 통한 노인 생활의 질 향상이다. 넷째, 퇴직연령의 연장을 통한 노동기회의 제공이다. 미시적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노인인구의 경쟁력 강화이다. 둘째,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양로보험 체계의 확충이다. 셋째, 유연한 인구정책의 시행이다.

제2절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중국 고령화 사회의 원인, 현황,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경제발전을 우선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다른 문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고령화에 대한 대비이다. 경제가 발전한 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 속도를 초과한 진입은 중국 정부로 하여금 노인문제 해결을 힘들게 만들었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의 막대한 투입 및 노동력 상실은 중국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거시적인 대책인 도시화, 신농촌 건설, 실버산업의 육성 등은 이러한 손실을 만회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미시적 대책을 수립함이 필요하다. 첫째, 기존 인구정책의 유지가 필요하다. 즉 2002년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인구와 계획출산법"의 제18조에 따라, 만혼과 만육을 유도하고 1자녀출산을 권장함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다. 중국 정부는 낮은 양로보험 보급률을 높이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셋째, 노인서비스의 확충이다. 노인이 즐겁게 황혼을 보낼 수 있고, 자식의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층 정부와 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재정 계획에 노인인구의 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노인인구는 사회의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경제발전의 기여자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그들은 현재 청장년층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배려는 미래의 불안감을 제거하고 현재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게끔 한다.

중국정부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지 노인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조화로운 사회 구성의 한 요소이기도 하다.



<참고 문헌>

한국문헌

강경락(2005), "현대 중국의 노인복지 정책과 실버산업", 강남대학교 『인문과학논집』 제14집.

고춘란·김선희(2007), "중국 도시와 농촌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김진경·송현수(2008),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간의 사적소득이전", 『사회보건연구』 Vol.24 No.3.

김태곤(2002), "중국 사회보험 연구-양로보험의 개혁 과정과 문제점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2집.

LiMingFu(2007), "중국의사회보장제도", 『국제노동브리프』.

박광준(1999) 외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세종출판사.

윤상하(2006), "중국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비즈니스 기회" 『LG 주간경제』.

이중희(2007), "중국의 인구정책과 고령화의 추세, 원인 및 특성", 『중국학』 제29집,

최유식(2009), "中 경제수도 상하이 쇠락하나", 『조선일보』.

"유엔, 기후변화로 식량위기 급속 악화"(2009), 「연합뉴스」.

"中 도시-농촌 간 생활소비 수준 10년 차이"(2009), 「연합뉴스」.

중국문헌

"保德新集團:中國面臨老齡化問題 未富先路需儘早應對"(2009), 『第一財經』.

杜鵬(2006), 『人口老齡化與老齡問題』, 中國人口出版社.

樊金娥·陳曉敏·高春蘭(2002), "城鄉爲勞服務比較研究", 民政部民政理論研究課題

何雪松(2002), 『社會學視野下的中國社會』, 華東理工大學出版社

侯楊方(2003), "民國時期中國人口的死亡率", 『中國人口科學』第5期

田雪原·王金營·周廣慶(2006), 『老齡化—從"人口盈利"到"人口虧損"』, 中國經濟出版社.

唐灿(2005), "中國城鄉社會家庭結構與功能的變遷", 『浙江學刊』, 第二期

湯兆云(2005), 『當代中國人口政策研究』, 知識產權出版社

----- (2009), "人口老齡化背景下的社會養老問題及對策", 「中國社會學網」

許祖華·車玉明·趙超(2009), "人大代表熱烈討論我國社會老齡化的問題", 「新華網陝西頻道」.

楊思涵(2009), "報告:中國老齡化問題將威脅社會安定", 「路透(Reuters)」.

曾毅(2004), 『中國人口分析』, 北京大學出版社

--- (1994), 『中國人口發展態勢與對策探討』, 北京大學出版社

趙飛飛(2009) "上海老齡化問題加劇 18%社保窟窿靠財政彌補", 「21世紀經濟報道」.

鄭玄波(2009), "中國老年人就業狀況及有關政策".

"中國老年人口2050年將超過億 將占總人口的1/3"(2009), 「中國網」.

"中國人口老齡化發展趨勢預測研究報告"(2009), 全國老齡工作委員會辦公室. 「中國網」.

『中國人口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中國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기타문헌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06), 「2006 인구통계자료집」.

『일본통상백서 2006』.

UN(2004),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4」.

UN(1999), 「Population Division, United Nations 199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1998 Revision Volume II: Sex and Age. New York:
United Nations.

참고사이트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

中國網, <http://www.china.com.cn>.

千龍網, <http://www.qianlong.com>.

中國社會學網, <http://www.sociology.cass.cn>.

聯合國網站, <http://www.un.org/zh/>.

雅虎, <http://kr.yahoo.com/>.

네이버, <http://www.naver.com/>.

中國勞動保障科研網, <http://www.calss.net.cn/n1196/>.

華程網, <http://www.huachengnz.com/>.

